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질문은 해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들이 기념하는 종교개혁기념일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매우 크고 넓다. 만일의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당대의 부패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와 사회와 그런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중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라고 대답하면서 그 가까운 원인들을 다 찾아 대답해야 할 어렵고도 폭넓은 질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그 이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c. 1330-84)처럼 정죄되거나 그의 글을 따르다가 1415년 7월 6일에 화형당한 얀 후스(John Huss, c. 1372-1415)나 1536년 10월 6일에 목이 비틀리고 화형당한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 c. 1494-1536)과 같이 정죄되고 화형당해 죽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적 주장을 하고서도 사형당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개혁이 이루어 진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역사가들은 왜 다른 이들은 사형당해 죽었는데 루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는가를 탐구하는 인간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의 질문은 종교개혁이 성공했건, 아니면 후스와 같이 화형당해 죽었던 당대에 종교개혁적 주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한정해 보려고 한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1) 외적인 이유: 당대 교회와 사회의 외적인 부패

흔히 종교개혁 전야라고 불리던 중세 말기의 천주교회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만하게 아주 분명히 나타났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 성적인 부패였다.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딤후 3:2, 12; 딤후 1:6)에 반해서 성직자들의 독신제도를 고착화시킨 당시 천주교회 내의 성적인 부패는 매우 심각했다. 고위 성직자들이 실질적인 아내를 두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직임과 함께 성직을 물려주는 (2) 세습의 문제가 당대의 외적인 부패의 또 다른 단면이었다. 그것 배후에는 (3)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물질 중심주의가 있었다. 당대에 문제가 되었던 면죄부를 파는 일도 결국은 누가 그 권한을 가지는가, 그리하여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는 성직 매매와 함께 당시의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다. 예를 들어서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세는 이미 2개의 주교직을 가진 호엔촐레른의 알베르트(Albert of Hohenzollern)에게 마인츠(Mainz) 주교직을 제안하면서 1,200두카트를 요구했다. 알베르트는 700 두카트를 주장했으나 결국 1,000두카트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대가의 하나로 그의 영토 내에서 8년 동안 면죄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알베르트가 가지고 절반은 베드로 성당 건축비용으로 내도록 했다고 한다. 물론 면죄부 판매원들은 성당 건축을 위한 기부를 백성들에게 요청하여 실질적인 문제

는 알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4) 명예와 힘을 휘두르는 것이 당시에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끔 한다. 그리고 (5) 일반 민중들은 성경적인 경건 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경건 생활의 형태를 유지하여 수없이 많은 미신을 양산해 갔다. 십자가 형상 자체에 의존했고 손으로 그 은 성호가 자신들을 악마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성자들의 무덤에 기도하면서 점차 성자숭배로 나아가는 등 온갖 미신이 난무하게 되었다. 당시 부활절 어간에만 일반 민중들에게 공개되었던 수없이 많은 성물들에 대한 숭배는 이런 미신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기원이 되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와 몹시 흡사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비록 시대적 차이의 상황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를지라도 성적인 문제, 세습 문제, 돈 문제, 명예와 힘의 문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비성경적인 종교개혁 행위를 하는 미신의 문제라는 본질은 뚜렷히 유사하다.) 어쩌면 이런 외적인 부패 때문에 종교개혁적 주장이 널리 퍼져 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웠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패는 종교개혁의 궁극적 원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대 교회의 이런 외적인 부패를 누구보다도 강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선예찬)과 같은 풍자 소설을 쓰기도 했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아마도 1469-1536) 같은 이는 결코 천주교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524년에 있었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루터와의 논쟁을 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적인 사상을 유지했다. 그러므로 당대 사회와 교회의 타락, 부패는 종교개혁의 근원적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2) 근본적 이유: 당대 교회의 교리의 문제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근원적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자신들이 화형당할 줄 알면서도 종교개혁적 주장을 했는가? 그것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벗어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를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종교개혁의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한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의 가르침과 예배와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한 것이다. 점차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당대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루터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생활을 공격했지만,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고 말할 바 있다. 즉,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병폐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기독교 이해 자체를 공격한 것이다. 그는 “기독교를 보존해야만 하는 사람들, 즉 주교들과 학자들 가운데에는 참된 기독교가 존재하기를 그만 두었다고 말할 뿐이다.”고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 이유였다. 말하자면, 당대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제2의 종교개혁을 운운하지만 그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공동체가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상황에서만 언급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패와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고쳐 가고 갱신하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교회가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안 교회의 합동 목사로 말씀을 설기면서,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진화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중세 말기의 교회, 루터 자신이 그 안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님이 되어 미사를 집례하던 그 교회 공동체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은 중세 말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이 왜곡되어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어 많은 백성들을 오도(誤導)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선포되거나, 성경의 복음을 왜곡하는 교회들은 모두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천주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비판하였던 그 천주교적 교리인 (1) 성경과 전통을 다 강조하는 입장, (2) 은혜와 믿음으로만의 구원이 아닌 믿음에 더하여 은혜에 근거한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공로 구원론), (3)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십자가의 속죄를 피 없는 형태로 다시 제시하는(represent) 피 없는 제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미사관, (4) 그 피 없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司祭, priest)이 있다는 견해, (5) 사제의 축성 이후에 성찬의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의 본질(substance)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transubstantiation) 화체설(化體說) 등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일탈적 가르침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루터와 칼빈이 오늘날의 천주교회를 판단한다면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명확히 이단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성경이 성문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시가 주어진다든 주장, (2)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몰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 (3)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

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함께 고려되어 칭의가 이루어지며 구원이 주어진다든 주장 등. 그러므로 어느 시대이든지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며 종교개혁의 대상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한국 교회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겸손히 회개하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이다. 그 갱신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들의 문제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1) 교회 세습 문제, (2) 목회자들의 재정적 투명성 문제, (3)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 문제, (4)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일에 게으른 문제, 그리고 (5)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표현만 있으면 어떤 형태의 종교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문제 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우리들의 외적인 부패의 문제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드러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기에 먼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 생각한다면 종교개혁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틀린 것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 우리의 교회 제도 가운데서 성경에 비추어 틀린 것들을 고쳐야 한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부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 깨달아 하나님을 모든 총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총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골 3:17-19)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

저자 스티븐 니콜스 | 역자 이용중 | 부흥과 개혁사 | 장가 11,000원
원제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다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사소한 것들로 인한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니콜스는 종교개혁기의 삶과 죽음을 높고 밝은 신앙으로 신화 논쟁의 시대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도가 되어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데오라,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 다섯 가지 강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종교개혁사상

저자 엘리스터 맥그래스 | 역자 최재관 |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가 23,000원
원제 Reformation Thought

제임스 펠리의 뒤를 잇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엘리스터 맥그래스의 저서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고립시키려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다가가기에 한다고 역설한다. 주제별로 묶어져 있으며, 개별 인물에 대한 설명을 더하여 내용 구성이 원뿔하게 되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인문주의·스콜라주의 종교개혁사상, 로마가톨릭의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종교개혁, 관주도적인 종교개혁과 급진적인 종교개혁 독립의 종교개혁 사상의 종교개혁,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과 미국의 종교개혁 등 모든 것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다루는 주제들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잘 짚어주고 종교개혁사상의 전체 구도가 저절로 정립하게 해 준다.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저자 마크 A. 놀, 케롤린 나이스트롬 공저 | 역자 이재근 |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가 20,000원
원제 Is The Reformation Over?

가톨릭교회의 개신교회는 지난 5백여 년의 긴 대립의 역사를 지나 왔다. 저자들은 미국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간의 소통과 화해 노력을 방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평가한다. 교회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비평해야 할 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안목을 가를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과 미술

저자 서성록 외 6명 | 예경 | 장가 16,000원

루터와 칼뱅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예술가들, 뒤러, 크라나흐, 홀바인, 브리켈, 쾰리만 등 이들은 또한 작품이 떠오르는 이 시대의 미술의 가장 좋은 자신들 고유의 영역, 곧 '미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역에서 지적으로 소위인 이들에게까지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에 미술사학의 서양화, 철학 등을 전공한 저자들이 대중을 위해 평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총체 역사의 한 단면인 종교개혁의 시기를 이해하는 데 있는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본문역사 입문 용어 등의 작품들은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각 작가의 회화를 이해하는 데 수월하도록 도와준다.